



Team 06

2024 "Computer Systems Theory and Laboratory"

Makers

곽병혁 (Leader)

20195008

- ✓ 전 기능 풀스택 개발
- ✓ Infra 구성, 배포
- ✓ UI / UX
- ✓ 서비스, 기능 기획

김재윤

20215052

- ✓ 일기변환 기능 LLM 개발
- ✓ diaryapp 백엔드 개발
- ✓ diaryList 프론트엔드 개발참여

윤세림

20215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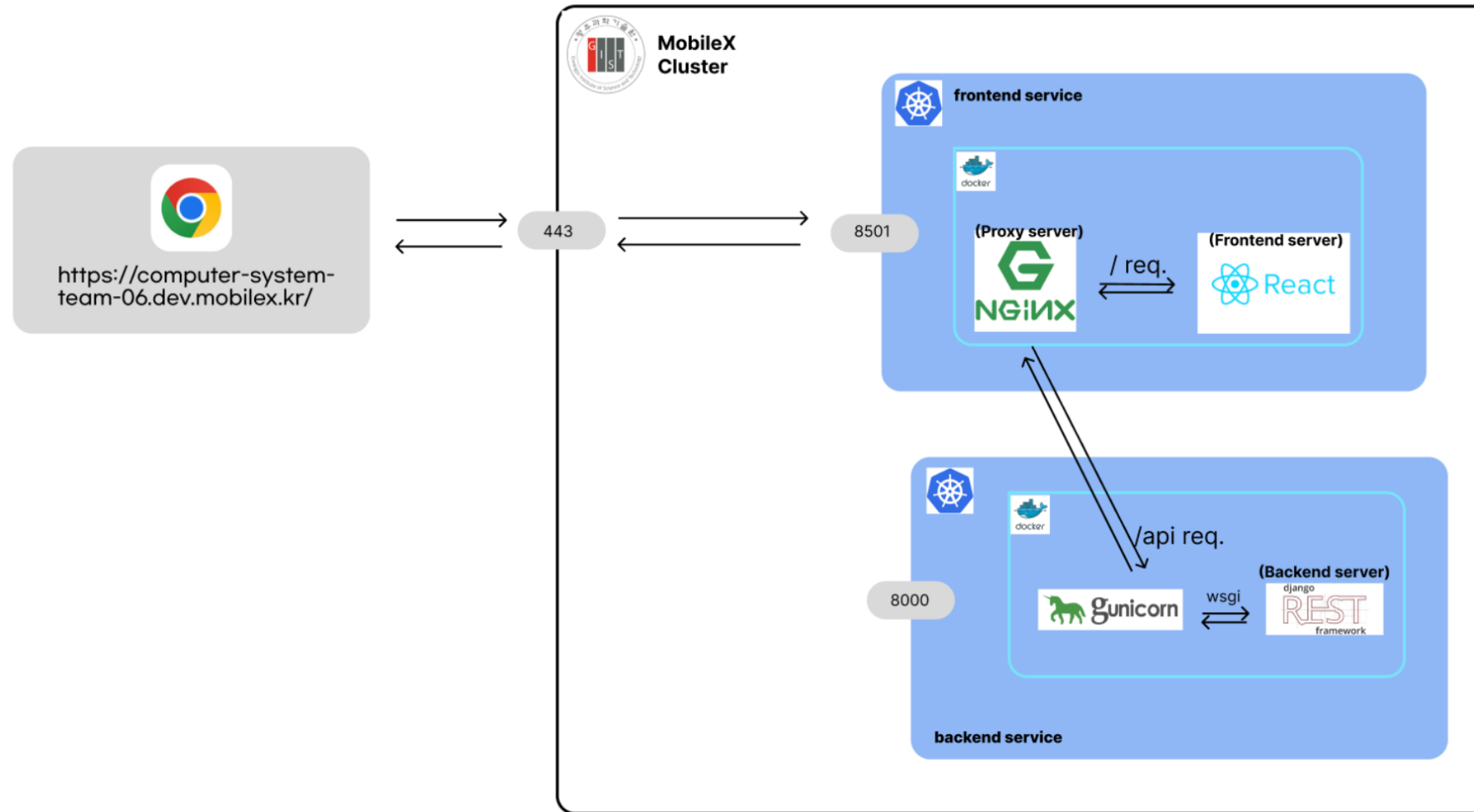
- ✓ UI / UX
- ✓ 서비스 디자인 총괄
- ✓ accountapp 프론트엔드 개발참여

Why Bridge?

	자아 존중감	우울감
긍정 일기 쓰기 그룹 (40명)	11.8 -> 13.88	49.3 -> 44.55
일기 쓰기 그룹 (40명)	11.6 -> 10.00	49.2 -> 51.6
일기 안쓰 그룹 (40명)	11.88 -> 12.15	48.63 -> 47.7

우울 감정의 고착 > 감정의 환기

Service Architecture



- 대략적 구성을 보이기 위함으로 Ingress를 통한 바인딩 형태, namespace 구성, node 구성, pod등은 생략하였습니다,
- frontend service , backend service 가 각각 frontend pod, backend pod을 관리합니다.



Bridge Manual

Team 06

2024 "Computer Systems Theory and Laboratory"



INDEX

1. 시작하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프로필 등록하기
- 메인 페이지

2. 일기 쓰기

- 일기 작성하기

3. 일기 확인

- 작성한 일기 리스트
- 날짜 별 리스트
- 일기 검색하기
- 작성된 일기의 확인

1. 시작하기 : 회원가입

Bridge

popcodh12

popcodh12@naver.com

....

회원가입

메일전송에는 최대 3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Bridge]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

^ 보낸사람 develop.bridge@gmail.com

받는사람 popcodh12@naver.com

2024년 6월 1일 (토) 오후 2:04

Bridge 회원가입 인증 메일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회원가입 인증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링크 : [활성화 링크](#)

이 메일은 발신용 이메일입니다.

1. 시작하기 : 로그인

Bridge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Bridge에 처음이신가요? [회원가입](#)

1. 시작하기 : 프로필



이름설정하기

여기에 프로필 이미지 추가하기

자기소개

프로필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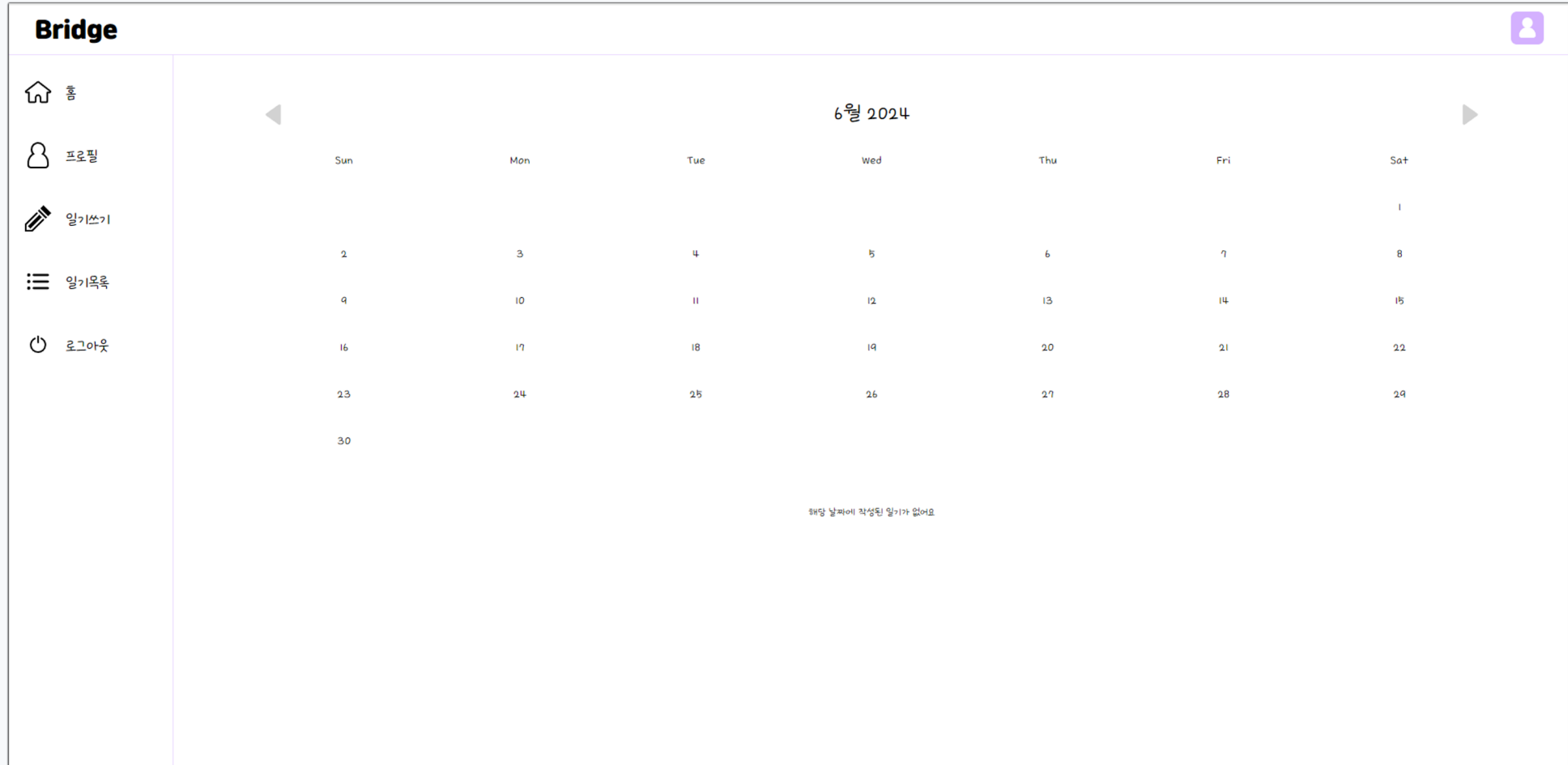
김재운

여기에 프로필 이미지 추가하기

김재운

프로필 업데이트

1. 시작하기 : 메인창



2. 일기쓰기

Bridge

🏠

main

👤

프로필

✎

일기쓰기

☰

일기목록

🔌

로그아웃

2024.06.01

회색빛 하루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피곤에 찌든 내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요즘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회사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서 나는 홀로 고립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다.

일터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상사의 지시를 듣고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시계만 바라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나에게서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음식 맛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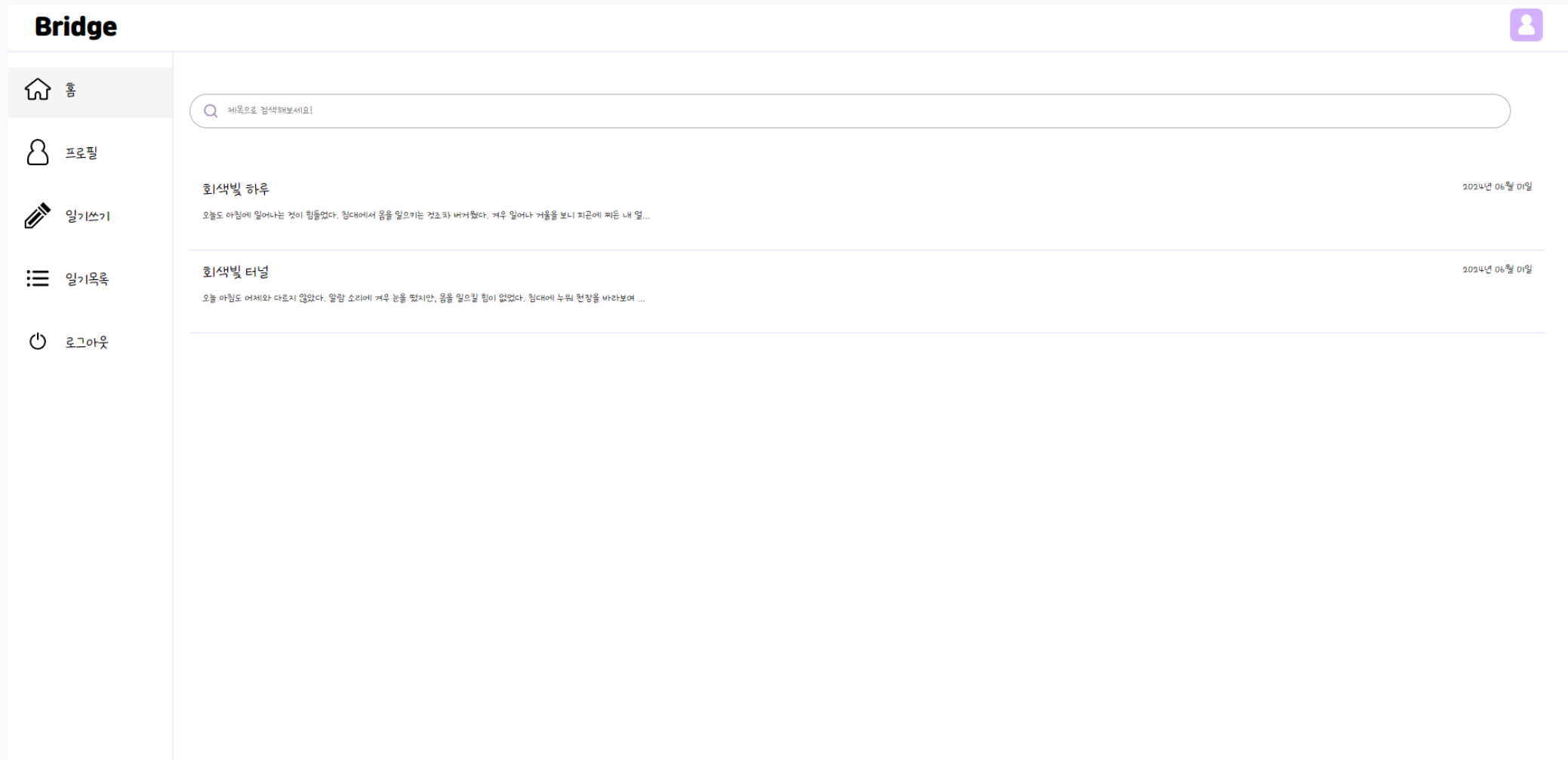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한다. 언젠쯤 이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636/1000

←

✓

2. 일기확인 : 리스트



2. 일기확인 : 날짜별

Bridge

홈

프로필

일기쓰기

일기목록

로그아웃

6월 202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회색빛 하루

2024년 06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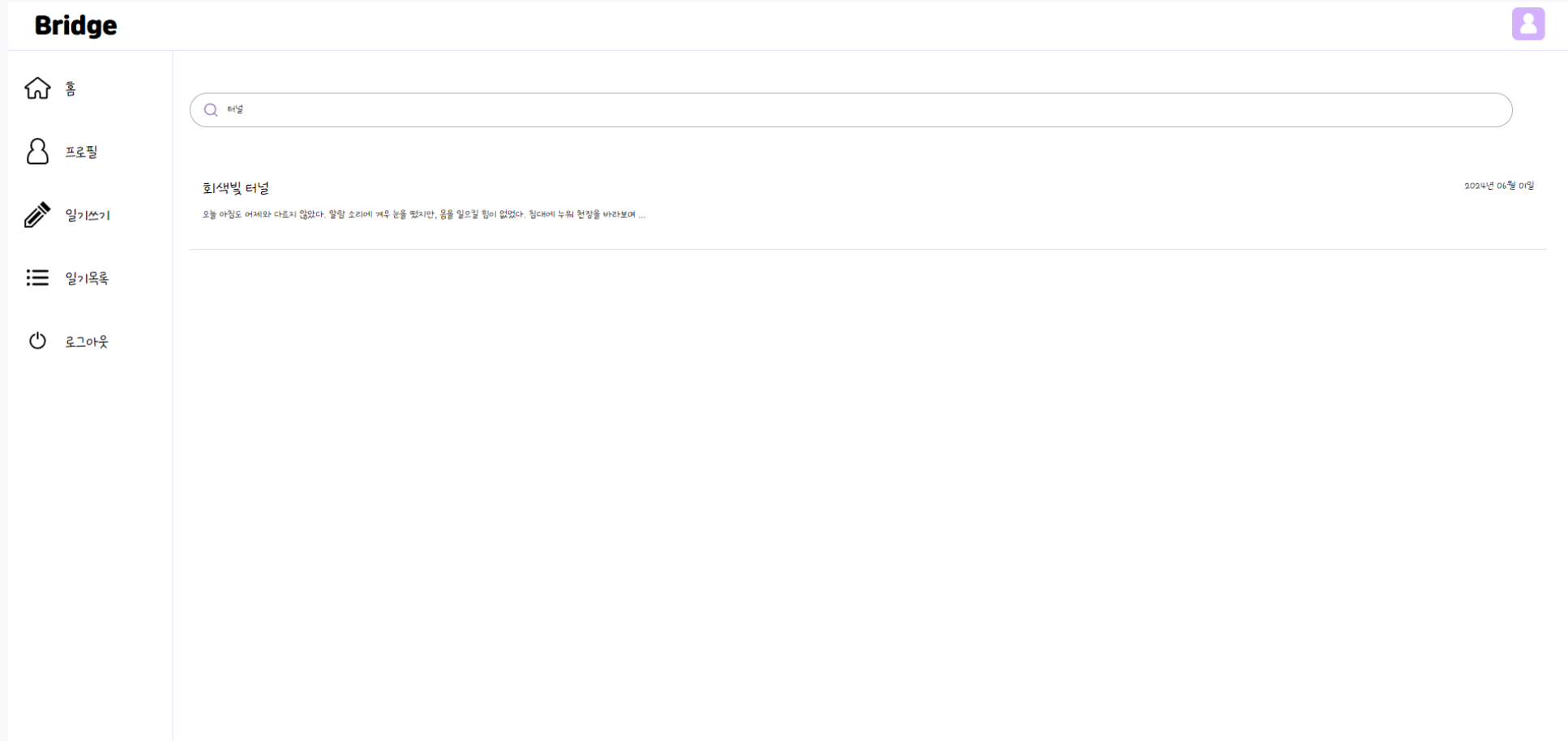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피곤에 찌든 내 얼굴...

회색빛 터널

2024년 06월 06일

오늘 아침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

2. 일기확인 : 검색



2. 일기확인 : 내용

Bridge



홈



프로필



일기쓰기



일기목록



로그아웃

2024.06.01

회색빛 하루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피곤에 찌든 내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요즘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회사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서 나는 홀로 고립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다. 일터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상사의 지시를 듣고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시계만 바라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나에게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음식 맛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다.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은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어쩌면 그만큼 편안한 잠을 자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도 나를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순간이었죠. 출근길에는 주변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졌을 텐데,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마음이 조금 침체된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도 가끔은 있죠.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날이. 일터에서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런 날도 가끔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순간이었을 텐데요. 그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다면, 그저 휴식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바쁜 하루였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내일은 이런 일을 해보면 어때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군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날이었을 텐데, 그럴 때는 특별한 관심과 케어가 필요해요. 내일은 평균기온이 18도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네요. 비는 오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마음을 편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는 요가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마음과 몸을 함께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힘든 하루를 보내셨던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 힘내요!

당신에게 공감해요

저런, 하루가 힘들었군요. 그런 날도 있죠. 힘든 날은 더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날이 지나가면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자신을 낯설게 느끼는 것은 정말 힘든 감정일 텐데,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일상이 지루하고 텅 빈 느낌이 들 때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끔은 가벼운 대화나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길 기대해봐요. 함께 응원할게요. 힘내세요.